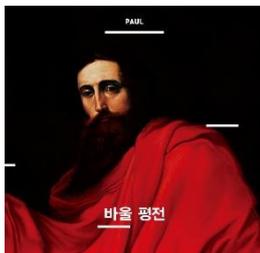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기시간입니다.

2023년 8월 6일자 설교입니다. 설교의 성경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집필한 이 바울이 문제적 인간입니다. 좋은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열 두 사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같이 활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람을 사도라고 했죠. 바울은 그런 12명에 속하지 않았는데 자칭 사도입니다. 자칭 사도인데 누가 인정을 해 주나요? 하여튼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 생전에 만나 보지 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고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했고 그 어떤 사도들 보다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복음서는 사도들의 글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사도들이 쓴 글이 아닙니다. 보통 마태가 썼지 또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썼지 또 누가 가 썼지 요한이 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후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요. 마태라는 그 거물 이름을 앞에 세워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어떤 지필 문필가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물론 그게 독창적으로 다 쓴 건 아니죠. 독창적인 것도 있지만 또 전승 때 내려온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편지는 베드로 전 후서 정도일까요 이게 적어요. 지금 이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근데 바울은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예수님 사건을 그렇게 변증해 낼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해요.



제가 요 책을 며칠 전에 손에 넣었습니다. 바울 평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739쪽까지 되네요 톰 라이트(Tom Wright) 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톰 라이트, 유명한 그 영국 성공회 사제입니다. 신학자예요. 유명합니다.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이 톰 라이트의 책, 바울 평전, 재밌을 거 같습니다. 150쪽 정도 읽었어요. 원서 제목이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UL, Biography 그리고 부제로 바이오그라피 생애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울 평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 평전에 요 읽기 시작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 150쪽 정도 읽었는데 재밌습니다. 그래 아주 쉽게 써요. 일반 신자들이 읽어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부제의 뜻이 바이오그래피 라는 부제의 뜻이 생애를 따라가면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읽었나? 그 뒤 까지 읽었나?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뒤로 또 조금 읽었네요. 아라비아로 가서 머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라비아가 모세를 연상시키는 장소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등등이 다 아라비아에 있

바울의 부제의 뜻이 바이오그래피 라는 부제의 뜻이 생애를 따라가면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읽었나? 그 뒤 까지 읽었나?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뒤로 또 조금 읽었네요. 아라비아로 가서 머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라비아가 모세를 연상시키는 장소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등등이 다 아라비아에 있

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저기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뭐 예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금방 깨닫고 확실하게 안 것처럼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마술처럼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어떤 일들이 용암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하듯이 끓고 있었어요. 그 다소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살고 있었던 그 다소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예요. 열성적인 유대 전통 가운데 살았죠.

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같은 종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어떤 체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경전이잖아요. 그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그 당시에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건지 한 거죠. 삶을 그렇게 산 거지 그 체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교도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부를 말이 없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종교 체제로 그 당시를 보면 안돼요. 우리 개신교회가 유대교가 정해 놓은 구약 39 권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구약 39권이 옛날부터 유대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게 아니예요. 오랜 역사 전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경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결정된 게, 유대교가 39권을 경전으로 결정한 게 90년인가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39권이 딱 자기들의 경전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다소에서 상당히 열정적인 그 유대교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사람이예요. 그 중에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와서 몇 년동안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도 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신앙에 들어갔냐 하는 것들을 촘촘하게 잘 이해해야만 그가 쓴 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울은 연구의 대상이예요. 연구할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톰 라이트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연구가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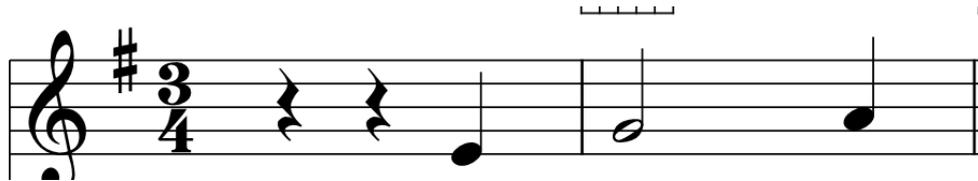
몇 대목만 보충하겠습니다. 설교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도하고 아쉽기도 하고 남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인정받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한계들을 그대로 우리는 안고 삽니다. 그런 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총체적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의로움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의롭다고 하는거고 완전해 진다는 얘기 말이에요. 약속 받았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완전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피아니스트 세 명을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습니

다.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백건우 조성진 즉 한창 잘 나가는 신예 피아니스트 임윤찬 처럼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약속 받은 어떤 학생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은 백건우 조성진 임윤찬의 피아노를 많이 듣고 보고 알았어요. 또 흥내도 내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쪽을 향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예술 경험과 신앙 경험이 비슷해요. 시 경험도 비슷하고요.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예요. 그 성경 언어와 신학 언어들은 일반 언어 하고 다른 겁니다. 예술도 예술의 표현이 나름대로 소리가 있잖아요. 그림이나 시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은 다른 어떤 암호화 같은 겁니다.

그 성경과 신학에 나온 그 언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콩나물 대가리, 사분음표 등등 이런 것들을 모양이 예쁘네 그렇게만 알면 악보가 이렇게 있고요. 모양으로만 알면 그 사람은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 오선지 위에 저 그 기표, 콩나물 대가리라고 보통 칭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배열 되는지를 보면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성경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란 말이에요.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깊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전체가 사실은 신비이긴 합니다.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결실을 맺는다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모든 아주 실질적인 세계도 신비이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비롭겠어요. 근데 그 신비라는 말도 사람들이 자꾸 남의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술을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난 모르겠다 이걸 모르는 거니까 신비로운 거야 그렇게 말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비의 세계를 느끼는 거 하고 낱말에만 머물러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백건우나 조성진이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어떤 학생이 정말 그 피하는 음악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걸 약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즐거운 겁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도 즉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피아노 세계가 무한 하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나오고 명성가들이 나오고 그들 만이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러니까 앞서서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예요.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처럼 또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런 것, 제가 다른데도 종종 얘기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나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실존이 뭐냐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다리를 짚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내 삶에 잘 안 풀리지 안 되지 해서 쓸데없이 매달리거나 이걸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대해서 이거 말고 교회에서 하는 재밌는 프로그램 이거는 재밌게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지내면 이것으로 만족스럽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백건우 조성진 임윤찬 연주를 현장에서 듣고 아 나도 저렇게 연습을 해야지 아 피아노의 세계 뭔가를 경험했으나 막상 자기가 연습을 하다 보니 힘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냥 씨디나 유튜브 이런 걸로 계속 피아노 음악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로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실제로 자기가 그걸 연주하고 싶어집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칭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칭의로, 율법패러다임에서 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걸 차분차분 차분히 차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설교 복기 시간에 한두 번 얘기해 갖고 굉장히 산만해질 거 같아요. 쫓기지 말고 설교 복기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만 잘 설명하면 될 거 같아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다른 데로 잠깐만 갑니다. 요 단어는 다른 거 하고 연결되는데 그 유기적 관계성을 모르면 이걸 뭐 이 말을 설명해도 그게 전달이 될까? 잘못하면 또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요 관계를 이야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아노,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로 예요. 거기서 또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작곡가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경험으로 끌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연주자가 그 악보를 연주하는 그 순간에 어떤 그 소리에 능력들이 거기에 결합된다는 거 이걸 정말 이해하게 이게 좀 만만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셨을 거예요.

율법 왜 이 바울이 올인 *Allin* 했잖아요. 원래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열정입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 못 돼요. 이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설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 취급 한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바울은 그렇게 나섰습니다. 이 율법을 확신했던 거죠. 아니면 율법에 아주 진정 성 있게 거기에 천착했으나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노골적으로 박해했는지 몰라요.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유독 더 어떤 대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심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나는 유대 전통에 대한 확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실현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봤는데 아니네 공허하네 더 자기의 무능력만,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무능력이거든요. 그것만 다 드러나니까 불안한 거죠 어떤 열광적인 한 요소와 불안한 요소가 결합돼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다 어디서 고꾸라진 겁니다.

그게 다메섹 도성에서의 회심인데 과연 그 바울의 영혼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이 홈 라이트가 설명하고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그거를 확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조금 더 제가 책을 잘 읽고 이해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칭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뀐거란 말이에요.

칭의가 뭐냐 그걸 이제 설교 중간 뒷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른 때에도 비슷하게 설명을 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새로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아 이걸 정말 새로운데 내가 새롭게 깨달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당연히 여태까지 여러 번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정말 더 새로운 거야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야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우습긴 합니다.

그 율법 패러다임에서 칭의 패러다임으로 넘어온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잘 지켜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들고 인정을 받느냐 하는 그 관점으로 부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에 대한 관점으로 관계가 바뀐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의 말씀을 먼저 몇 시0 일어나야 돼 자기 전에 뭐 해야 돼 하루에 책을 몇 시간 읽어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깊이 나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무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리 가능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비슷하게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설교 거의 마지막 단락에 가서 팀 켈러 목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그분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팀 켈러 Timothy Keller 목사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와서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았어요. 제가 이분 이름은 진작에 듣기는 했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본 건 얼마 안 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설교 제목의 강연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분이 5월 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것도 그도 인터넷으로 보게 된 겁니다. 21세기 C.S 루이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설교자로서,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와 같다는 말은 기독교를 변증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설교자와 변증과는 다른 겁니다. 설교자는 선포할 뿐이예요. 근데 변증가는 기독교를 보편적인 이 세 개의 생각과 말로 변호하는 거죠 변증 하는 거야 말 그대로 apologetics 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거예요. 조직신학자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설교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켈러가 설교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예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걸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데 아주 전문적인 학자는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팀 라이트와 같은 신학자는 아니예요. 제가 또 전공한 판넨베르크 같은 신학자는 아니예요. 왜 변증가로 무척 뛰어납니다.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는 방식으로 설교해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따라 가기는 좀 멀었는데 설교 준비하거나 설교할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게 변증 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변증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대목들이 조금 나와요. 이 팀 켈러 목사가 1950년생이예요. 만(滿)으로 일흔 두 살입니다. 그런데 취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분의 SNS에 그런 글이 실렸다고 하죠 제가 설교 문에서 썼습니다. 5월 19일 sns 에 다음과 같이 글에 쓰였다고 합니다. 남편이자 할아버지 멘토이자 목사 친구이자 학자인 팀 켈러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서거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SNS를 같이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도 언젠간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알림방에 누구든지 저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올리겠죠. 정용섭 목사가 대구성서아카데미 원장이자 작가 정용섭 목사가 어젯밤에 서거했다고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